

국제연합과 세계기상기구를 대표하는 수장 두 사람이
2020.3.11. 뉴욕 소재 UN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WMO의 지구 기후현황 보고’

번역: APCC 전문위원 김세원

이산화탄소 농도 경향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계속 상승추세
(2019.2월: 411.75 ppm → 2020.2월: 414.11 ppm)

최근 영국기상청이 내놓은 기후 10년 전망에 따르면,
향후 5년 이내에 지구 온도가 1850-1900년의 평균보다 1.06~1.62도 상회할 것으로 예상. 이 중 1.5도 상회할 확률은 약 10%

구테레스 유엔사무총장은 “모든 국가들은 향후 10년 내에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2010년 대비 45% 감축 목표에 도달해야 하며 금세기 중반에는 온실가스 흡수-배출 균형(Net-Zero)이 이뤄져야 지구 온도가 1.5도 높아지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

“지금까지 70개국 정부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했고, 그밖에도 많은 도시들, 은행들, 기업들도 동일한 약속을 천명하고 있지만, 약속한 감축량은 아직도 지구 전체 배출량의 4분의 1에 미치지 못함.”

이산화탄소 실시간농도 경향을 보면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계속 상승 추세이다. (2019.2월: 411.75 ppm → 2020.2월: 414.11 ppm)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기자회견에서 WMO 사무총장의 ‘전지구 기후 현황’ 발표에 앞서, 2020년은 전지구적 차원의 기후행동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해가 될 것인데, 이는 세계가 더 이상 늦기 전에 악화일로 걷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을 제어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 하는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9년 기후 현황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경고성의 물리적 신호 즉 육지와 바다의 데워짐 심화, 해수위 상승 가속, 해빙의 녹음,

그 밖에도 날씨와 기후 이변이 사회경제발전, 인류 건강, 이민, 이주, 식량 안보, 육지와 바다 생태계 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이 분야의 전지구적 방향키 역할을 하게 될 이 보고서에는 전세계 기상수문관서들을 비롯하여,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 전문연구기관들,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종합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정책결정자들에게 ‘기후행동’에 나서는데 필요한 권위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자회견에서 WMO의 탈라스 사무총장은 하와이에 있는 WMO 공식 지정 지구대기 표준감시소인 마우나로아 감시소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의 수준이 2020년 1월과 2월 사이에 관측 이래 최고치를 또 다시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근에 영국기상청이 내놓은 10년 전망에 따르면, 향후 5년 이내에 지구 연평균 기온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있으며, 2020-2024년 기간 중 지구 온도가 1850-1900년의 평균보다 1.06~1.62℃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한 해 평균이 1.5℃를 상회하는 상황은 대략 10퍼센트 확률로 본다고 밝혔다.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에서 조명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주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테레스 유엔사무총장은 금년 11월 글래스고에서 있을 제26차 기후회의에 높은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면서, 모든 국가들은 향후 10년 내에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2010년 대비 45% 감축 목표에 도달해야 하며 금세기 중반에는 온실가스 흡수-배출 균형을 반드시 이룰 것을 천명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인데, 이것만이 지구 온도가 1.5℃ 높아지는 것을 제한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래스고 회의의 성공은 국가 정부들을 비롯하여 민간부문, 시민사회에 달려있는데, 바로 이들이 완화·적응·재정에 관한 야심찬 중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70개국 정부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했고, 그밖에도 많은 도시들, 은행들, 기업들도 동일한 약속을 천명했지만, 약속한 감축량은 아직도 지구 전체 배출량의 4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했다.

UN 사무총장은 공동체와 국가들이 기후 변화상황에 적응하고 복원력을 갖도록 돕는 것에 최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전까지 선진국들이 천명한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씩 모금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신재생 및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며, 작년까지 증가하고 있던 광대하고 낭비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오는 COP-26에서는 전 세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